

일주문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한 선서각전 대구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노인전문요양병원 무량수전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선서각전을 7월 14~19일 KBS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053)474-8228



통일부장관상 수상 한국선심사리치료연구원 원장 도각 스님은 6월 24일 열린 통일과 환경백일장에서 '평화통일의 빛'이라는 시로 대상인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삼보선원 개원 및 정안법회 구미 삼보선원 원장 능인 스님은 7월 14일 오전 10시 구미시 사곡동에서 전 통불교대학 삼보선원 개원 및 봉불 집안법회를 봉행한다.



제10차 지도자 연수 교육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김성호 회장은 7월 15~16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10차 지도자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21회 불이상 시상식, 지홍 스님·석길암씨 수상



사진 왼쪽부터 윤운숙, 무진·홍문 스님, 석길암, 명성 스님, 2명 뒤 홍라희, 지홍 스님, 정병조, 1명 뒤 김중서 박사, 성정 스님.

재가여성불자단체인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주관하는 제21회 불이상 시상식이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동국대 강사 석길암씨와 아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지홍 스님(정향사 주지)이 각각 연구 분야와 실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동국대 정병조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지홍 스님은 활발한 불교 포교활동과 사회복지분야의 공로로, 석길암씨는 젊은 소장학자로서 원효사상에 폭넓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아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상소감에서 지홍 스님은 "복지분야의 실천과 발전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석길암씨도 "지금 한국 불교학계는 논문 분야에 양·질적으로 괄목할 만큼 발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교학 연구에 더욱 매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과 불이회 운영총 명예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음악계 말아톤' 최준 군 자선음악회

강북장애인복지관 주최, 첫 피아노 독주

"피아노를 치면 상쾌해요."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배형진과 같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음악계의 말아톤' 최준(16) 군이 첫 피아노 독주에 나섰다. 최군은 지난 4월 일반인도 쉽게 도전하기 힘든 판소리 완창에 성공하며 '판소리 말아톤'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유명인. 그런 최군이 자신과 같은 발달장애인을 돕기



최준(사진 왼쪽)군이 신민인씨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명을 얻었던 유명인. 그런 최군이 자신과 같은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자선음악회 무대에 섰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공) 주최로 7월 4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휴(休) 여름, 쉬어가다' 음악회에 출연한 최군은 오른손을 8분 여에 걸쳐 칠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슈베르트 환상곡 작품90'을 안정적인 기량으로 독주했다. 이어 스승인 피아니스트 신민인 씨와 함께 베토벤,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을 이 중주로 협연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한마음선원에 다녔다는 최군은 지금도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새벽예불 참석과 108배를 곱할 하는 독실한 불교신자다. 최군의 어머니 모현선(44)씨는 "준이가 재능을 살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도난문화재 거래 '선의취득' 될 수 없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노웅래 의원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부실한 범죄행위 때문에 불법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개정돼야죠."

7월 3일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제출한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사진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예외조항 신설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전환 등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은 "민법 249조의 '선의취득' 조항은 도난문화재 거래에 원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19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문화재매매업 신고제는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문화재 도난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지자체나 문화재청이 이를 관리·감독해 문화재 거래현황 파악과 투명 문화재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운불련 제8대 회장에

김부열씨 선출

"전국 5000

여명 회원 모두 불교대학에서 공부해 부처님 가르침에 보다 바르고 가깝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7월 1~2일 원주 구룡사에서 열린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이하 운불련) 창립 제12주년 기념 수련회 및 정기총회에서 운불련 제8대 회장에 선출된 김부열 회장(62·법성·사진)은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당선소감 첫머리로 열었다.

김 회장은 "각 지역에서 정기법회는 물론 특별 수계법회를 통해 법명을 받게 하고 종단 신도증 갖기, 재적사찰 갖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북미주 총동문화 김경재 회장

'아름다운 후배사랑'

동국대 한 선배의 후배사랑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동국대 재학생 25명은 7월 8일 미국 문화체험을 떠나게 된다. 미국에서 2주간 주요 대학탐방과 LA, 뉴욕, 워싱턴 일대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동국대 북미주총동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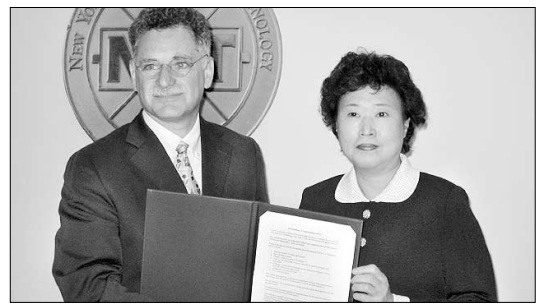
김경재(61·사진) 회장이 매년 1억원 이상의 사재를 내놓아 진행되는 행사다. 2004년 20명, 2005년 21명이 소중한 체험을 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김 회장은 이 외에도 '김경재 동문 장학'을 설치해 학기당 250만원씩 2명의 학생에게 장



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학기간 중 사법고시 1차 합격할 경우 등록금 전액과 학비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위덕대, 뉴욕공과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위덕대(총장 한재숙·사진 오른쪽)는 6월 28일 뉴욕공과대학(NYIT·총장 줄리아노·왼쪽)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위덕대 학생들은 NYIT의 의학 및 간호학 분야를 포함한 전 관련 학과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위덕대는 7월 4일 중국 북방이공전주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진산식 성금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기탁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이 진산식에서 회환 대신 모은 성금을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탁했다. 허운 스님은 6월 29일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에 성금을 전달했다. 기념사업본부는 동국대 경주병원에 난치병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성목적 기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오세훈 서울특별시 신임시장(사진 왼쪽)이 7월 1일 서울 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를 방문했다. 오 시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상을 알기 위해 복지센터를 찾았다"며 "앞으로도 격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시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어르신들의 부탁에 일일이 손을 잡았다.

법주사 외국인 유학생 템플스테이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7월 1~2일 청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5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중국과 몽골 등에서 온 유학생들은 새벽예불과 참선, 발우공양 등을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했다. 포교국장 각우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 전통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덕림사, 명사초청강연 마쳐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7월 2일 대웅전에서 명사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김미옥 해남생협 운영위원장은 "우리몸을 살리는 건강한 먹거리" 주제 강연에서 패스트푸드와 식품첨가물 실상을 소개하고 집콕위주의 식사를 제안했다. 초청강의에 앞서 제6기 기초교리강좌 졸업식이 열렸다.

15면 하단광고로 이어집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본인은 광주 동원사 주지 지각(박말서)스님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1일자로 신문지상에 (재)한국불교 법륜종 탈종 공고를 했었는데, 이후 (재)한국불교 법륜종에서 체탈도첩으로 공고되어 부득이 탈종했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인은 (재)한국불교 법륜종 창종 이후 입종하여 종단의 제반불사에 동참하고 종단 발전에 노력을 해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한국불교 법륜종에서는 동원사 주지 지각(박말서)의 승적원부를 분실 내지는 말소시키고도 소식이 없다가 지난 6월 5일에 본인이 확인 했을때까지 원부작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국장(홍대회)이 새롭게 작성하여 보관하겠다는 소식을 받고, 총무원장(고산)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답이 없어서 탈종하게 되었는데, 총무원측에서는 사과대신 종헌종법을 내

세워 「제3장 8조(징계) 2항, 탈종을 도모한자. 3항, 사리를 위한 파당을 조성하거나 승단의 화합을 파괴한 자. 5항, 종단의 범통과 안정 발전을 해칠 목적. 7항, 종단 발전을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으로 체탈도첩을 공고했기에 저의 판단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어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종단에서 승적원부를 없앤 사건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으면서 탈종공고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중무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승적을 없앤다는 것은 종단에서 이미 종단의 승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탈종을 했던 것인데, 체탈도첩이라는 공고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진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종단행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종도의 잘못으로 돌리는 (재)한국불교 법륜종의 처사에 큰 유감을 표시하며 진실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